

An Analysis of Pope Francis' Youth Discourse in *Christus Vivit*: Shared Authority, the Ethos of Accompaniment, and World Youth Day (WYD)

Jinyoung Ha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rhetorical analysis of Pope Francis' apostolic exhortation *Christus Vivit* (CV) in order to investigate how directive authority is transformed into a shared authority and an ethos of accompaniment within a synod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how these are realized in the context of World Youth Day (WYD).

[Cont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applies Aristotle's concept of ethos and Austin's theory of performative utterances as analytical frameworks to examine the dual-audience structure, interrogative rhetoric, and performative speech acts within the text. The analysis demonstrates how CV reconfigures authority through listening, reciprocity, and communal discernment, thereby constructing a shared authority between Pope and youth, and how these rhetorical strategies are embodied in the pastoral and educational reality of WYD.

[Conclus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CV establishes leadership as accompaniment by rendering the Emmaus model into a pastoral narrative and by fostering a shared authority grounded in mutual discernment between Pope and youth. Furthermore, the combination of CV's rhetorical strategies and the lived experience of WYD offers a synodal model of practice for Catholic edu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preparing for the 2027 Seoul WYD should welcome young people as co-subjects in the present and promote educational renewal centered on listening, dialogue, and accompaniment.

[Keywords] Pope Francis, *Christus Vivit*, Shared authority, Ethos of accompaniment, World Youth Day (WYD)

* **Corresponding author** Jinyoung Han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 jinyoung9212@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Christus Vivit*) 청년 담화 분석: 함께 말하는 권위, 동반의 에토스 그리고 세계청년대회(WYD)

한진영

가톨릭관동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전공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도적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tus Vivit*, 이하 CV)에 나타난 수사학적 전략을 분석하여, 시노드적 교회 이해 안에서 교도권의 권위가 어떻게 ‘함께 말하는 권위’와 ‘동반의 에토스(Ethos of Accompaniment)’로 전환(Transformation)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Ethos)와 오스틴의 수행발화(Performative utterance) 이론을 분석 기법으로 채택하여 CV 담화 내의 이중 청중 설계, 질문법, 수행발화 장치를 고찰하였다. 특히 CV가 초두의 1인칭 복수형 화법과 직접 말걸기(Direct Address)를 통해 화자와 청자 간의 수직적 거리를 해체하고, 경청을 복음 선포의 본질적 전제로 제도화하며, 교회의 과오에 대한 투명한 인정과 책임 윤리를 통해 신뢰 기반의 에토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사적 기제들이 교황과 청년이 함께 식별하고 대화하는 ‘함께 말하는 권위’를 형성하며, 세계청년대회(WYD)라는 실제적 현장에서 어떻게 사목적·교육적으로 구현되는지를 규명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V는 엠마오 모델을 사목적 서사로 가시화함으로써 권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리더십을 정립하였으며, 상호성 선언을 통해 교황과 청년이 대등한 주체로서 함께 식별하는 ‘함께 말하는 권위’를 구현하였다. 둘째, CV의 수사적 전략과 WYD의 현장성이 결합된 ‘시노드적 실천 모델’은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한국 가톨릭 교육 현장이 청년을 ‘지금-여기의 공동 주체’로 환대하고, 경청과 대화 중심의 교육적 쇄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함께 말하는 권위, 동반의 에토스, 세계청년대회(WYD)

Received April 16, 2026 / Revised June 07, 2026 / Accepted June 08, 2026

I. 서론

오늘날 청년 세대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한복판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등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청년 세대를 ‘가장 우선적인 복음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목적 배려를 지속해 왔으나, 이제는 추상적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인 ‘동반’의 언어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발표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도적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tus Vivit*, hereafter CV)¹⁾는 청년이 직면한 위기에 신학적·인류학적으로 응답하며, 교회 공동체를 대화와 동반의 영성으로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문헌은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hereafter WYD)라는 역동적인 현장에서 울려 퍼진 청년들의 갈망에 대한 교황의 응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현장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CV가 청중을 설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인 ‘에토스(ethos)’에 주목한다. 수사학에서 설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성품과 인격에 근거한 믿음을 주는 행위이다(Lee, 2016: 166).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실천적 지혜(phronesis), 덕(arete), 호의(eunoia)의 총체인 에토스는 공적 담론에서 화자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Han, 2015: 215).

선행연구는 교황 담화가 강한 에토스 형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함을 보여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연설·강론 분석은 공감과 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수사를 밝힌 바 있고(Cho, 2016: 61), 성서·교회 문헌의 수사학 연구는 고전과 신수사학 틀로 설득 구조와 수사 장치를 해명해 왔다(Song, 1999: 1-26; Oldenburg, 2018; Mamalipurath, 2021: 250-266; Okoro, 2023: 109-125; Jose, 2024: 37-58). 또 CV를 토대로 한 청년 신학 논의는 ‘인퀴에투디네(건전한 조바심)’와 성경적·그리스도론적·교회론적·마리아론적 모델을 통해 청년의 주체적 성장과 공동체 참여를 강조한다(Kanu, 2018: 1-11; Kim, 2021: 113-154). 이렇듯, 교황 프란치스코의 담화는 공감과 연대를 통해 강력한 에토스를 형성해 왔으나, CV에서 나타나는 ‘권위적 훈계에서 동반으로의 전환’ 양상을 수사학적 층위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CV 내에서 지시적 권위가 동반의 에토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사학적 분석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질문법이다. 본 연구는 CV에 나타난 질문을 화자 중심의 일방적 선포에서 청자 중

1)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tus Vivit*)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8년 10월 개최된 제15차 세계주교 대의원회의(청년 시노드)의 최종문서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25일 반포한 사도적 권고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보내는 교도권 문헌이다. 이 문헌은 청년들의 삶에 대한 경청과 동반, 그리고 소명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가톨릭 청년 사목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심의 내적 탐색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능동적인 ‘참여 장치’로 분석한다. 둘째, 수행발화(performative utterance)이다. 오스틴(Austin, 1962)의 이론을 바탕으로, CV 내의 선언, 축복, 초대 등의 언어가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발화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사건이 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셋째, 이중 청중(dual audience) 설계이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청년(Youth, hereafter Y)과 성인 세대(사목자, 부모, 교육자; Mentors, hereafter M)라는 서로 다른 청중을 담화 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관계적 권위’를 형성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II.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V)의 수사학적 맥락과 가톨릭 교육

1. 교회 문헌과 교황 담화의 수사학적 성격

가톨릭교회에서 교회 문헌과 교황 담화는 하느님의 말씀을 시대의 징표 안에서 해석하고,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 소통의 핵심 수단이다. 공의회 문헌을 비롯하여 교황 회칙(litterae encyclicae)과 사도적 권고(adhortatio apostolica) 등의 교회 교도권은 신앙과 도덕, 사회 문제에 대한 사목적 방향을 명문화하여 제시하는 ‘공적 가르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CV는 사도적 권고의 형식을 취하며, 이는 교황이 교회 공동체에 특정 활동을 촉구 하고 사목적 지침을 내리는 공식적인 담화 양식이다(Liturgy Office, n. d.)

이러한 문헌과 담화는 단순히 교리적 규범을 전달하는 텍스트를 넘어, 청년, 환경, 빈곤, 평화 등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자 세상과 대화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따라서 교회 문헌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황이 단순히 ‘무슨 말을 했는가(contents)’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how), 누구에게(audience), 어떤 관계(relationship)’를 설정하여 발화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즉, 교회 담화는 신자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언어이며, 이를 통해 화자인 교황이 전통적 권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현대적 소통의 에토스(ethos)를 구축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Zängle, 2014: 329-364).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대의 변화가 교회 사명에 던지는 질문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성 바오로 6세의 성찰과 궤를 같이한다(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6: 22-23).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방법을 재검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대인에게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요구한다. 오직 그리스도교 메시지 안에서만 현대인은 자신의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인류애적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Paul VI, 1973. 6. 22.).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하느님 말씀의 선포(kerygma-martyria), 성사 거행(leitourgia), 자선 사도직 수행(diakonia)은 결국 ‘말’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설교와 강론을 단순한 학술적·수사적 유희가 아닌 생명과 진리를 향한 ‘진실한 말’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신자들의 용기를 북돋고 삶의 현실에 질문을 던지는 역동적인 복음 선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Benedict XVI, 2005: 40).

이러한 교회 텍스트의 수사학적 성격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송봉모는 성경 텍스트에 고전 수사학과 신수사학을 통합 적용하여, 바오로의 논증이 에토스·파토스·로고스의 결합을 통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심의적 연결임을 밝혔다(Song, 1999: 1-26). 최근의 코퍼스 기반 담론 분석인 오코로의 『가톨릭교회 교리서』 연구 또한 핵심 키워드와 조동사 활용 등의 언어 전략이 신앙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Okoro, 2023: 109-125).

교황 담론에 관한 연구들 역시 소통의 방식에 주목한다. 호세는 베네딕토 16세의 공적 담화를 ‘자연법’이라는 번역 매개로 설명하며, 종교 내용을 보편 이성의 언어로 전환해 공론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모델을 제시했다(Jose, 2024: 37-58). 마말리푸라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TED 강연을 포스트세속주의 수사학으로 해석해 스토리텔링과 공감, 행동 촉구로 재배열하는 전략을 분석했다(Mamalipurath, 2021: 250-266) 특히 조원형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연설 분석을 통해 공감과 연대, 책임 호소, 친근한 말걸기가 어떻게 강력한 신뢰의 에토스를 형성하는지 보여주었다(Cho, 2016: 61-68).

결국 교회 문헌과 교황 담화는 권위적 명령이 아닌 ‘공감과 설득의 수사학’을 통해 청중에게 다가가는 복음 선포의 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CV라는 구체적인 텍스트가 어떻게 ‘함께 말하는 권위’를 실현하며, ‘동반의 에토스’를 매개로 청년 세대와 관계를 맺는지 수사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WYD와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신학적 고찰

교황 프란치스코의 청년 담화는 추상적인 신학적 선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hereafter WYD)라는 구체적인 역동적인 수사학적 맥락 안에서 청년들과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형성된 응답이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교육신학적 고찰은 WYD라는 현장과 결부될 때 비로소 ‘동반 사목’의 실천적 성격을 띠게 된다. 가톨릭교회의 청년 사목(youth ministry)은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순례하도록 이끄는 교회의 핵심 직무다. 교황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영적 사막화’를 경고하며, 현실 세계에서 청년들과 함께 걷는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Francis, 2013: n. 86).

김영훈은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그 후속 권고인 CV에 나타난 교황의 교육적 관심이 ‘인quietudine’(inquiétude, 건전한 조바심)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Kim,

2021: 113-154). 교황에게 청년이란 마음속의 조바심을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통해 창조적 디딤돌로 삼고, 열망을 동력 삼아 부단히 여정을 이어가는 존재다. 이는 청년 교육이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는 ‘환대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V 138항 또한 이러한 조바심을 “새 지평이 열릴 때 느끼는 기쁨의 전율”이라 정의하며, 청년 안에서 미래를 향한 담대함이 형성되는 영적 근거로 보았다(Francis, 2019: n. 138).

수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교육신학적 고찰은 담화의 에토스(ethos)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카누는 CV에 나타난 청년 모델을 성경적, 그리스도론적, 교회론적, 마리아론적 관점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Kanu, 2018: 1-11). 이 모델들은 청년들이 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인격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CV 발표 5주년 메시지에서 강조된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라는 선포는 갈등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 된다(Francis, 2024. 3. 25.). 교황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우정에서 비롯된 기쁨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며, 그들을 ‘움직이는 교회의 살아있는 희망’으로 재규정한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청년 사목은 문헌과 담화를 통해 청년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어 어원인 ‘시노도스(Synodos)’에서 유래한 것으로, ‘함께’를 뜻하는 ‘신(syn)’과 ‘길’을 뜻하는 ‘호도스(hodos)’가 결합하여 ‘함께 길을 걷는 것’(walking together)을 의미한다. 즉,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이끄는 구조가 아니라 청년과 사목자가 대등한 주체로서 여정을 공유하는 수평적 동반을 전제한다(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2018. 3. 2.). 2018년 청년 시노드와 WYD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이 담화 맥락은 교황이 왜 전통적인 하향식 권위 대신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반의 에토스’를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교황은 경청의 제도화, 직접 호명과 질문법, 그리고 격려와 축복의 수행발화를 수사적 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청년 사목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수사학적 배경은 CV가 단순히 읽히는 텍스트를 넘어, WYD라는 현장에서 청년과 교회가 ‘함께 말하는 권위’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임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CV의 구체적인 수사장치들이 어떻게 동반의 교육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동반의 에토스와 수사적 소통 기법

본고에서 고찰하는 ‘동반 사목’과 ‘동반의 에토스’(ethos of accompaniment)는 충위를 달리하는 상호 보완적 개념이다. 사목적 지향으로서의 동반이 화자의 신뢰와 태도를 결정짓는 수사학적 에토스로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담화는 그리스도교 종교 언어 특유의 영적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신자들의 필요와 인식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수사적 장치들을 전략적으로 결합한다(Francis, 2024. 3. 25.). 이는 종교적 메시지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신자들과 인격적인 소통 안에서 동반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Bartík, 2018: 29-30).

수사학적 관점에서 에토스(ethos)는 화자의 고유한 성품이나 인격적 신뢰성을 뜻하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이를 실천적 지혜(phronesis), 도덕적 미덕(arete), 청중에 대한 호의(eunoia)라는 삼중 구조로 파악하였다. 화자가 청중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사태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와 도덕적 결합이 없는 덕뿐만 아니라, 청중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선의와 호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중 화자의 절대적 권위나 무결한 미덕(arete)에 주된 거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교도권 담화의 ‘교시적 에토스’에서 탈피하여, 화자가 청중과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동반의 에토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CV에 나타난 에토스는 이 삼중 구조 중에서도 청중을 향한 화자의 진실한 사랑과 배려를 뜻하는 ‘호의(eunoia)’를 동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관계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지닌다(Han, 2015: 215). 전통적인 교도권 담화가 화자의 권위와 신학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혜’나 ‘덕’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CV는 청중의 안녕과 성장을 도모하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소통의 전제로 삼는다. 이는 하향식 규범 전달을 탈피하여 청년들의 삶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동반의 핵심 동인이 된다. 이러한 호의의 에토스는 구체적인 수사 장치(Rhetorical Devices)를 통해 가시화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질문법, 수행발화, 이중 청중 설계를 핵심 분석 범주로 설정한다.

여기서 질문법은 화자 중심의 일방적 선포에서 청자 중심의 내적 탐색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결정적 장치이다. CV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질문은 단순히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을 넘어,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신앙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이는 권위자가 진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청년의 곁에서 함께 진리를 찾아 나가는 ‘동반자적 권위’를 형성하는 기제가 된다.

둘째, 수행발화(performative utterance)는 ‘말을 통한 행위의 수행’을 의미한다(Mukhroji et al., 2019: 38-39). 오스틴(Austin, 1962: 1-15)이 구분한 진술적 발화(constative)가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언어 행위라면(Mukhroji et al., 2019: 45-46), 수행발화는 선언, 약속, 축복, 초대와 같이 발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된다(Austin, 1962: 12). 오스틴에 따르면, 이러한 언어적 행위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발화 행위(locutionary act)를 넘어, 발화 속에 특정한 사목적·언어적 의도를 담은 ‘발화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이를 통해 청중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이끌어내는 ‘발화효과적 행위(perlocutionary act)’라는 삼중 구조의 역동을 통해 완성된다(Austin, 1962: 94-101). CV에서의 수행발화는 이러한 발화내적·발화효과적 역동을 내포함으로써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 안으로 진입시키는 사목적 행위다. 위로와 고무, 격려와 파견의 언어는 청중의 감정과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화자

와 청중 사이의 인격적 연대를 공고히 한다.

셋째, 이중 청중(dual audience) 설계는 교황 프란치스코 수사학의 독특한 전략이다(Bartík, 2018: 30). 수사학의 맥락에서 이중 청중 설계는 발화자가 표면상의 일차적 청중을 넘어, 그 소통 구조를 관찰하는 잠재적·이차적 청중에게도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된다. 이 설계는 직접적인 지시나 훈계가 유발할 수 있는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차 청중으로 하여금 타인을 향한 발화를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교육적 용도를 지닌다(Black, 1970: 109-111). 교황은 이러한 수사학적 메커니즘 안에서 청년(Y)을 직접 호명하며 담화의 주체로 세우는 동시에, 사목자·가정·교육자(M)를 향한 지침을 교차시킨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동일한 메시지는 청년에게는 따뜻한 ‘초대’로, 성인 세대에게는 성찰적인 ‘규범적 요구’로 다르게 작용한다. 화자는 하나의 담화 안에 서로 다른 역할 기대를 중첩함으로써 청중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며(Black, 1970: 112-119), 이를 통해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권위를 해체하고 ‘함께 말하는 관계적 권위’를 정립한다.

결과적으로 CV에 나타난 다양한 수사적 기법들은 동반이라는 사목적 가치를 텍스트 내에서 실증적인 에토스로 변환시키는 도구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사 장치들이 WYD라는 현장성과 결합하여 어떻게 청년 세대를 교회의 주역으로 호명하고, 동반의 사목 패러다임을 완성하는지 미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I. 함께 말하는 권위: CV에 나타난 동반의 에토스 분석

1. 지시적 권위에서 동반의 에토스로의 전환

교황 프란치스코의 CV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공동 주체성’에 기반한 동행의 에토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1인칭 복수형인 ‘우리’와 청유형 표지인 “함께, 우리도 필요”를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수직적 명령이 아닌 공동의 책임으로 전환한다. 담화의 서두에서 교황은 ‘우리’라는 주체를 전면에 내세워 교회 전체의 공동 성찰을 천명하며(CV, n. 3), 세상과의 친밀성과 대조성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우리’ 모두의 증언 과제로 제시한다(CV, n. 36).

이 교황 권고는 우리 신앙에서 비롯되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성덕을 기르고 자신의 소명에 헌신해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황 권고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여정의 표석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을 아우르

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도 이를 보내 드립니다. 젊은이에 관하여 그리고 젊은이를 위하여 성찰하라는 요구와 격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V, n. 3)

이러한 동반의 에토스는 가르침 자체를 ‘우리’의 공동 작업으로 정의하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CV, n. 38). 교황은 ‘초대’와 ‘권리 박탈 금지’를 하느님 백성 전체의 책무로 명시하며(CV nn. 229, 299), 특히 마지막 항에서는 교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수사를 통해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에 여러분이 먼저 도착하면 거기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시오”(CV, n. 299)라는 발화는, 화자가 청중보다 앞서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재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CV는 경청, 격려, 함께 걷기라는 ‘연대의 표지’를 통해 지시적 권위를 관계적 권위로 변환한다(CV, n. 39). 교황은 통제와 규범보다는 ‘동반과 격려’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하며(CV, n. 230), 청년을 피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공동 주체로 위치시킨다(CV, nn. 37, 206, 246). 특히 “청년 사목은 시노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CV, n. 206)는 선언은, 교황 담화의 수사적 목표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 자체를 구현하는 데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CV의 ‘우리’ 중심적 화법과 수평적 리더십은 전통적 교도권 문헌의 소통 방식과 비교할 때 수사학적 객관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일례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의 경우, 교회의 권위와 신학적 정당성을 엄밀하게 논증하기 위해 3인칭 객관적 서술이나 1인칭 단수 ‘나’에 기반한 교시적 권위를 주로 활용하였다(Benedict XVI, 2005. 12. 25.).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CV에서 신학적 명제를 연역적으로 증명하기보다, 1인칭 복수형인 ‘우리’를 전면 배치하여 교황 자신을 청중과 대등한 위치의 순례자로 재배치한다. 이는 기존 교도권 문헌이 가르침을 수직적으로 ‘선포’하는 데 집중했다면, CV는 청중과의 수평적 동반관계를 텍스트 내부에서 ‘형성’하고자 함을 실증한다.

교황의 직접적인 호명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하다. “소중한 존재”(CV, n. 115),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CV, n. 143)과 같은 정감 어린 호명은 격려의 언어와 ‘우리’라는 복수 주어의 병치를 통해 동행감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호명은 청년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를 약속하는 ‘관계적 권위’를 강화하며, ‘경청하는 교회’라는 태도를 담화 내에 제도화한다(CV, n. 206).

요컨대 CV는 ‘우리/함께’라는 공동 주어의 사용, 교도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수사(자기 폭로), 그리고 ‘경청-격려-동반’의 연대 표지를 촘촘히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지시적 권위를 동반의 에토스로 성공적으로 치환하였다. 이로써 교회와 청년 간의 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훈계가 아니라, WYD의 현장 정신을 담은 ‘함께 말하는 권위’로서의 말걸기로 수행된다.

2. 관계적 권위와 진정성의 에토스 형성

본 절에서는 CV에서 교도권 담화가 ‘명령하는 권위’에서 ‘관계적 권위’로 전환되는 과정을 진정성의 에토스(authentic ethos)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학적 측면에서 진정성의 에토스는 화자의 가치와 신념이 실제 삶의 경험 및 책임 있는 태도와 일관성을 이룰 때 형성되는 강력한 설득 자원이다. 이는 화자의 법적 지위보다 일관성, 투명성, 책임감을 통해 강화되며, 청중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핵심 기제가 된다(Ha, 2018: 111-137).

교황 프란치스코는 CV의 초두에서 1인칭 자기 서술과 직접 호명을 통해 화자와 청자 사이의 문턱을 낮춘다(CV, nn. 1, 3, 4). 그는 일방적인 교시 대신 자신의 의도와 정서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수행발화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의 기초를 닦는다. 특히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청년 시노드)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기 서술을 병행하며, 이 문헌이 교황 개인의 독단이 아닌 ‘함께 걷는 여정(synodalitas)’의 산물임을 명확히 한다(CV, n. 4).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 젊은이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CV, n. 1)

주목할 점은 교황이 교회의 과오를 감추지 않는 ‘공개적 고백’을 통해 진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CV, n. 101). 그는 교회의 죄를 “주름진 모습”으로 형상화하며 과오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낮춤의 수사는 청년들에게 교회를 ‘무결한 규범의 집행자’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순례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해석의 한계를 솔직히 시인하며 청년을 다시 호명하는 방식(CV, n. 103)은 전통적인 교도권의 절대성을 완화하고, 청년들을 사목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함께 식별하는 공동 주체’로 격상시킨다.

모든 이의 눈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의 나이들고 주름진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 나누며 이천 년 동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CV, n. 101).

교회의 과오와 취약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러한 낮춤의 수사 역시 전통적 교도권 담화의 수사학적 관습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교시적 문헌들이 교회의 무결성과 초역사적 ‘덕(Arete)’을 수사학적 거점으로 삼아 규범의 절대적 집행자로서 진정성을 확보하려 했다면, CV는 오히려 교회의 역사적 주름과 한계를 솔직하게 노출하는 ‘자기 폭로’를 통해 청중과

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반전의 에토스를 구사한다. 앞서 제시한 베네딕토 16세의 회칙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확인되는 이러한 진정성의 에토스는, 본고의 분석이 화자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도권 문헌 역사상 실재하는 수사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CV에 나타난 진정성의 에토스는 ① 1인칭 화법과 절차적 투명성(CV, nn. 1, 3, 4항), ② 책임 있는 공개 고백(CV, n. 101), ③ 한계 인정과 재호명(CV, n. 103)이라는 삼중의 수사 장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이후 전개되는 질문법, 격려, 축복 등의 수사적 기제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말하는 권위’를 실체화한다.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정성은 WYD의 현장 정신과 맞닿아 있다. 그는 교회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관계적 권위를 강화하며, 청년 사목의 본질이 ‘동반’(accompaniment)과 ‘공동 식별’에 있음을 담화의 구조 자체로 입증하고 있다.

3. 질문법과 수행발화의 교육적 기능

수사학적 관점에서 CV의 질문법은 분별을 촉발하는 능동적인 ‘참여 장치’(participation device)이자, 청년 스스로 신앙의 주체가 되게 하는 교육적 매개다. 본 문헌에서 질문은 단순히 정답을 유도하는 기법이 아니라, 청중이 스스로 신앙의 맥락을 짚어내는 ‘참여형 분별 프로토콜’의 트리거(trigger)로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기드온의 반문(CV, n. 7항)은 질문이 소명으로 전환되는 ‘서사적 분별’의 인입부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의 삶을 성서적 서사와 연결한다. 또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CV, n. 41항)라는 질문은 교회 구성원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구조적 분별’로 확장되며, 특히 “예수님, 저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CV, n. 158)와 같은 질문은 청년 개개인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가치를 식별하게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를 내면화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형 질문은 권위자가 해답을 주입하는 대신, 청년이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돕는 ‘동반의 수사학’을 실현하는 교육적 장치가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젊은이들의 꿈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CV 41항).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 저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라고 주님께 여쭙어보아야 합니다 (CV, n. 158).

나아가 CV의 수행발화(performative utterance)는 결단과 파견을 촉구하는 실천적 ‘행동 설계’의 기능을 수행한다. 질문법이 청년의 내면을 개방하는 ‘인식적 기능’을 담당한다면, 명령·격

려·축복 등의 수행발화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레버(lever)가 된다(CV, nn. 112, 142, 229, 299).

첫째,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CV, n. 112)와 같은 케리그마적 선포는 사랑의 확언을 통해 청년의 자기효능감을 고양하며 신앙적 결단의 심리적 토대를 형성한다. 둘째, 실패를 허용하는 격려(CV, n. 142)와 참여를 촉구하는 발화(CV, n. 143)는 청년을 관망자에서 ‘복음의 주체’로 변모시키며 파견의 현장으로 점화시킨다. 셋째, 사목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행정적 수행발화(CV, nn. 229-230)는 권위의 역할을 ‘관리’에서 ‘조력적 코칭’으로 재설정하며, 청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반의 교육 환경 구축을 의무화한다.

젊은이들을 이 새 생명의 원천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에게서 이 위대한 선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그 젊은이들을 동행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CV, nn. 229-230).

텍스트 내부에서 청중의 역동을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이러한 질문법과 수행발화의 수사 장치는, 기존 교도권 문헌의 고유한 담화 양식과 비교할 때 각 문헌이 지닌 사목적 지향점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례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본질을 교회가 대대로 수호해 온 진리 안에서 엄밀하게 규정하고 변증하는 신학적·명제적 담화에 초점을 맞추었다(Benedict XVI, 2005. 12. 25.). 이는 교회의 보편적 가르침에 확고한 교리적 기초와 사상적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전통적인 담화 규범에 충실한 수사학적 선택이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CV에서 이러한 신학적 진리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체적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법과 실천적 변화를 촉구하는 수행발화를 구사한다. 즉,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가 교회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체계화’하는 교시적 권위의 정수를 보여준다면, CV는 그 가르침을 청년의 일상으로 이끄는 ‘동반의 수사학’을 수행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베네딕토 16세의 회칙과 구별되는 이러한 담화적 고유성은, 본고의 분석이 화자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교도권 문헌이 목적에 따라 구사해 온 수사학적 패러다임의 다양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CV의 질문법과 수행발화는 교황의 권위를 ‘지시’에서 ‘동반’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청년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교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강력한 교육적 동력이 된다. 이는 언어 행위의 층위에서 관계적 권위를 실천적으로 구성하여, WYD라는 현장에서 청년들이 주체적인 신앙을 형성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IV. 관계적 권위의 확장: 이중 청중 설계와 WYD의 교육적 구현

1. 이중 청중 담화의 구성과 수사적 전략

교황 프란치스코의 CV는 청년(Youth)과 성인 세대(Mentors: 사목자, 부모, 교육자)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 청중(dual audience) 구조를 취한다. 이는 권위의 주체인 교황이 각기 다른 청중에게 상이한 수사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동반의 에토스’ 안에서 관계적 권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교육 전략이다.

1) 청년 직접 호명 배치 분석

교황은 담화 전반에서 청년을 ‘여러분’으로 직접 호명하며 2인칭 대화를 시도한다. 서두에서 케리그마(Kerygma)를 현재형으로 선포하며 청년 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신앙적 유대감을 즉각적으로 형성하는 장치다(CV, nn. 1-2).

특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CV, n. 112)라는 선언은 청년의 존재 기반을 재확인하는 정체성 확인(identity affirmation)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지는 부활의 선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CV, n. 123)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통해 부활의 현재성을 청년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청년의 희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체성-격려 담화’로 확장되며 신앙적 동력을 제공한다(CV, nn. 123-124).

이러한 직접 호명은 담화의 결말부에서 “함께 걸어가자”는 동반의 약속으로 귀결된다(CV, nn. 298-299). 교황은 교회가 청년의 추진력과 신앙을 필요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청년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닌 교회의 공동 주체로 위치시키며 수직적 권위를 상호의존적인 관계적 권위로 변환한다.

2) 사목자·가정·교육자 배치 분석

청년에 대한 직접 호명이 정체성 확인을 지향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CV는 사목자와 부모, 교육자들에게 기존의 지시적 권위를 넘어서 새로운 ‘동반의 윤리’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사목자에게는 ‘경청의 제도화’를 명령한다. 교황은 경청을 단순한 자선적 태도가 아닌 복음 선포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며(CV, n. 38), 권위의 성격을 ‘말하는 권위’에서 ‘듣는 권위’로 재배치한다(CV, n. 39). 특히 사목자의 역할을 통제가 아닌 ‘생명의 원천으로 초대하는 이’로 설정하며, 청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반의 에토스를 강조한다(CV, n. 229).

둘째, 교육자와 사목 실무자들에게는 ‘대중적(popular) 청년 사목’의 설계자가 될 것을 촉구한다.

다. 교황은 이들을 단순히 규칙을 집행하는 관리자로 보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동행하며 내면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코치’(coach)이자 ‘멘토’(mentor)의 역할로 재규정한다. 이는 교육적 리더십의 본질을 ‘통제와 지시’에서 ‘역량 강화와 지지’로 전환하려는 수사적 의도를 담고 있다. 교황은 이들에게 유연한 공간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범이나 통제를 삼가라고 권고하며(CV, nn. 230, 239), 파견의 주체가 청년임을 명확히 한다.

셋째, 가정을 ‘일상의 동반’이 구현되는 일차적 교육 공간으로 재정의한다. 부모에게는 정서적 안전기반을 제공하고 인내와 용서를 통해 자녀와 ‘한 가족을 이루는’ 교육적 위임을 부여한다(CV, n. 217). 특히 246항에서 교황은 동반자가 청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까지 마련해 주어야 함을 역설한다.

“동반자는 젊은이의 식별 과정에 따르는 자유를 존중하고, 젊은이가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동반자는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이의 역량을 진심으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CV, n. 246).

3) 관계적·촉진적 권위로의 전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CV의 청중 담화는 청년에게는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고, 성인 세대에게는 경청과 조력의 역할을 부여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다. 교황은 사목자에게는 ‘제도화와 비통제’를, 부모에게는 ‘일상의 포용’을, 교육자에게는 ‘문턱 낮추기’를 요구하며 공동체 전체의 리더십을 관리에서 코칭으로 전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사적 배치는 교황의 수직적 권위를 관계적·촉진적 권위로 치환하며, 청년을 담화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아닌 ‘교회의 현재’로서 당당히 서게 만든다. 이는 WYD라는 구체적 현장에서 청년과 교회가 ‘함께 말하는 권위’를 실현하는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된다.

2. WYD 현장의 수사학과 사목적·교육적 실제

본 연구에서 규명한 동반의 에토스는 CV라는 텍스트 내에 고립된 수사적 장치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세계청년대회(WYD)라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수사학적 공간 안에서 교황과 청년이 ‘함께 말하는 권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지향하는 동반의 교육 패러다임을 감각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WYD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제정한 것을 기점으로, 교회의 쇄신을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탄생한 국제적 신앙 축제다. 1984년과 1985년 로마에서 개최된 이래, 1987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시작으로 국제적 여정을 이어온 WYD는 1995년 마닐라 대회를 거쳐 오는 2027년 서울 대회를 앞두고 있다. 특

히 서울 WYD는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로서, CV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음화와 청년 교육의 확장을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Han & Choi, 2024: 237-253).

이러한 맥락에서 CV는 WYD가 구현하려는 청년 교육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배경 문헌이자 그 정신을 언어화한 가이드라인이다. CV의 서두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라는 선언은 WYD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험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실제적 사건과 조응한다(CV, n. 1).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Dicastery for Laity, Family and Life, 2024. 5. 20.)는 WYD를 CV가 제시하는 비전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제시하며, 청년과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황의 초대를 실현할 것을 요청한다(Francis, 2024. 3. 25.). 특히 교황은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이며,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CV, n. 178)라고 선포함으로써, WYD가 지향하는 청년의 주체성과 현재적 사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WYD 사목 지침은 청년들을 ‘함께 목표를 향해 걷는 순례자’라 명명하며, 주교·사제·평신도 지도자가 이들과 함께 머무르고 기도하는 공동체적 동반의 에토스를 기본 정신으로 제시한다. 교황은 CV 발표 5주년 메시지에서 WYD 역사를 부활의 희망을 체험하는 장으로 해석하였다. 즉, CV가 동반의 에토스를 수사학적 차원에서 언어화한 것이라면, WYD는 이 에토스를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교수·학습하는 실천의 장(場)인 것이다.

CV의 수사적 장치들은 WYD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구현을 이룬다. 우선 CV의 초두는 2인칭 호명을 통해 청년의 정체성을 ‘현재’의 복음 안에 위치시킨다(CV, nn. 1-2). 교황은 지시의 언어 대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다”는 수행발화를 통해 청년을 대화의 대등한 상대로 설정한다. 이어지는 ‘경청의 제도화’와 ‘권위의 재배치’는 WYD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듣는 구조’의 교육신학적 근거가 된다(CV, nn. 38-39).

나아가 교황은 청년들에게 ‘하느님의 지금’(God’s now)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며 현장 투신을 촉구한다(CV, nn. 143, 178). 이는 WYD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청년이 교육의 수혜자에서 주체로 전환되는 ‘행동 프레임’을 제공함을 입증한다. 특히 ‘초대의 수사학’과 ‘문턱 낮은 포용’, 그리고 ‘비통제 동행’은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WYD의 순례 정신을 수사적으로 뒷받침한다(CV, nn. 229, 233-234, 239).

결국 CV의 결론에서 선언된 상호성은 WYD를 통해 완성된다(CV, nn. 298-299). 청년의 추진력과 교회의 지혜가 만나는 이 현장은 수직적 권위가 아니라 ‘함께 말하고 함께 식별하는’ 관계적 권위가 실현되는 수사학적 공간이 된다.

3. 동반의 에토스를 통한 가톨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환

CV에서 실현된 관계적 권위는 단순한 담화 양식의 변화를 넘어, 가톨릭 교육의 지향점을

‘가르침(Teaching)’에서 ‘동반(Accompaniment)’으로 이동시키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의 교육학적 표지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립한다.

첫째, 수직적 지시에서 인격적 연대로의 전환이다. 교황은 1인칭 수행발화와 직접 호명을 통해 교도권의 초월적 거리감을 해체한다(CV, n. 1). 이는 가톨릭 교육자가 더 이상 진리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니라, 청년과 동일한 지평에서 하느님을 향해 걷는 ‘공동 순례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사적 선택은 화자의 위치를 ‘권위의 위’에서 ‘현장의 옆’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인격적 신뢰에 기반한 관계 중심적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둘째, 정보의 전달에서 경청의 제도화로의 전환이다. 교황은 경청을 복음 선포와 교육의 본질적 전제(sine qua non)로 정의한다(CV, n. 38). 이는 교육의 중심축을 교사의 ‘설명’에서 학생의 ‘삶’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교회 내 의사소통 구조를 상호적 순환으로 재설계하라는 권고는, 교육 현장이 단순히 교리를 학습하는 장소를 넘어 청년의 고뇌와 희망이 공적으로 수용되는 ‘경청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함께 듣는 권위’가 선행될 때 비로소 ‘함께 말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교육학적 원리를 천명한 것이다(CV, n. 39).

셋째, 완벽주의 규범에서 진정성의 책임 윤리로의 전환이다. 교황은 교회의 과오를 고백하고 성직주의의 폐해를 시인함으로써 투명한 책임 윤리를 전면에 내세운다(CV, nn. 95-101항). 수사학적으로 이는 화자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교육적으로는 ‘취약성의 교육학(Pedagogy of Vulnerability)’을 실천하는 것이다. 완벽함을 가장한 권위 대신 실수를 인정하고 정화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도덕적 위선이 없는 진실한 신앙 모델을 제시하며,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윤리적 토대를 형성한다.

넷째, 주입식 교수법에서 엠마오식 동반 모델로의 전환이다. CV가 제시하는 엠마오 서사(CV, nn. 236-237)는 청년 교육의 표준적 방법론이다. 이는 권위자가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 곁을 지키며 청년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촉진적 지도력(Facilitative Leadership)’을 의미한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동무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걸으십시오”라는 묘사는 교육자가 학습자의 삶에 동참하는 능동적 현존을 상징하며,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그들을 이끄십시오”라는 대목은 신앙적 성찰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명시한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CV, n. 237)는 결론은, 동반의 교육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청년의 자기 주도적 응답과 회심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엠마오 모델은 ‘질문-경청-해석-동행’의 수사적 연쇄를 통해 청년을 자기 주도적 신앙의 주체로 세운다. 교육자의 역할은 청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공동체(예루살렘)로 복귀하게 만드는 조력자로 재규정된다.

다섯째, 일방적 시혜에서 상호의존적 동반으로의 전환이다. 담화의 결말에서 교황은 교회가

청년의 추진력과 신앙을 필요로 한다고 고백한다(CV, n. 299). 이는 수직적 권위의 종언과 상호 학습(mutual learning)의 시작을 알리는 수사적 정점이다. 청년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동반자’이자 ‘하느님의 지금’으로 환대하는 것은, 가톨릭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관계적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CV의 동반의 에토스는 2027년 서울 WYD를 앞둔 한국 가톨릭 교육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그것은 규범과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년의 자유와 주체성을 존중하며 함께 식별하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설계도다. 이상의 수사장치들은 관계적 권위를 실현함으로써 청년을 공동체의 주역으로 세우는 동반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성한다.

V. 결론 및 제언: 교회와 청년의 함께 걷기(Synodalitas)

본 연구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도적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V)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적인 교도권의 ‘지시적 권위’가 청년과 함께 식별하고 응답하는 ‘관계적 권위’, 즉 동반의 에토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V의 초대(CV, nn. 1-4)는 1인칭 자기 서술과 직접 호명을 통해 화자와 청자 간의 수직적 거리를 축소하고, 문헌 생성 과정의 투명성을 드러냄으로써 신뢰 기반의 진정성 있는 에토스를 구축하였다. 둘째, 경청을 단순한 배려를 넘어 복음 선포와 교육의 본질적 전제로 격상시킨 것(CV, 38-39)은 권위를 ‘말하는 구조’에서 ‘듣는 구조’로 재설계하려는 수사적 의지를 보여준다. 셋째, 교회의 과오를 인정하고 성직주의를 비판하는 책임 윤리의 강조(CV, nn. 95-101)는 권위의 정당성을 법적 지위가 아닌 윤리적 투명성에서 확보하려는 시도다. 넷째, 엠마오 모델(CV, nn. 236-237)은 질문-경청-해석-동행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청년 교육의 규범으로 제시하며 동반의 수사학을 방법론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말부(CV, n. 299)의 상호성 선언은 교회가 청년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말하는 권위’를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이렇듯 CV 담화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가 요구하는 ‘참여-공동책임-선교적 파견’의 운영 체계가 어떻게 이중 청중 설계(dual audience design)를 통한 질문법, 수행발화, 관계 표지라는 구체적인 수사 장치를 통해 가톨릭 교육의 언어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그간 신학적 해석에 치중되었던 교도권 담화 분석에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을 적용함으로써 종교교육학적 문헌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 있

다. 본고를 통해 규명된 ‘함께 말하는 권위’는 탈권위주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목소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에토스의 표준을 제시한다. 특히 청년과 성인 세대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이중 청중 구조’에 대한 분석은, 향후 발표될 교황 문헌의 수사적 특징과 교육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석적 준거가 될 것이다.

교육적 실제의 차원에서도 본 연구는 CV의 수사적 전략이 WYD라는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구현되는지 밝힘으로써, 청년 교육 행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본고에서 도출된 질문법의 원리와 진정성의 에토스는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청년들과 인격적으로 조우하며 그들의 자기 주도적 신앙 형성을 조력할 수 있는 실천적 소통 매뉴얼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CV의 담화 전략과 WYD의 현장성이 이루는 구조적 역동성은 ‘함께 걷는 교회’를 뜻하는 시노달리타스가 단순한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담화의 형식과 현장의 만남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실천적 교육 모델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CV 담화는 모든 하느님 백성의 ‘함께 걷기’를 언어적 층위에서 가시화한다. CV는 규범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청년을 공동 식별의 주체로 세우는 시노달리타스의 수사학적 이정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교회는 청년을 ‘교회의 미래’가 아닌 ‘지금-여기의 공동 주체’로 환대하고, 경청과 대화, 공동책임에 기초한 교육적 쇄신을 2027년 서울 WYD를 향한 여정과 교육 현장 전반으로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Abbreviations]

CV: *Christus Vivit*

WYD: World Youth Day

[Primary Sources]

Benedict XVI (2005. 12. 25.). *Deus Caritas Est*.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Francis (2013. 11. 24.). *Evangelii Gaudium*.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Francis (2019). *Christus Vivit*.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Francis (2024. 3. 25.).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to Young People for the 5th Anniversary of the Apostolic Exhortation “Christus Vivit”*. Retrieved 2026. 1. 7., from

<https://worldyouthday.com/five-years-of-christus-vivit>.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2018. 3. 2.). *Synodality in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Paul VI (1973. 6. 22.). *Address to the Sacred College of Cardinals*.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Secondary Sources]

1. Books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ldenburg, C. J. (2018). *The Rhetoric of Pope Francis: Critical Mercy and Convers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한석환 (2015).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울: 서광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S. H. (2015). *A Study on Aristotle's Rhetoric*. Seoul: Seogwangsa.

2. Journal Articles

Black, E. (1970). The Second Persona. *Quarterly Journal of Speech*, 56(2), 109-119.

Cho, W. H. (2016). A Rhetorical Discussion on Pope Francis' Homilies and Speeches During His 2016 Visit to Korea.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hetoric*, 61-68.

Ha, B. H. (2018). Rhetoric of Ethos. *Chulhak-Tamgu[Philosophical Exploration]*, 49, 111-137.

Han, J. & Choi, J. (2024).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Hosting the 2027 Seoul World Youth Day (WYD).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 24(4), 237-253.

Jose, J. (2024). Rhetoric of Natural Law in the Public Discourse of Benedict XVI.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9(1), 37-58.

Kanu, I. A. (2018). Theological Models of Youth in Christus Vivit. *Nnadiesbube Journal of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1(1), 1-11.

Kim, Y. H. (2021). Pope Francis' Understanding of Youth: Focusing on the Concept of 'Inquietudine'. *Pastoral Outlook*, 212, 113-154.

Lee, J. W. (2016). Ethos, Ethoses: A Contribution to the Ethos of Ancient Rhetoric.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74, 165-188.

Mamalipurath, J. M. (2021). Postsecular Rhetoric of the Pope: A Discourse Analysis of Pope Francis' TED Talks.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6(2), 250-266.

- Mukhroji, M., Nurkamto, J., Subroto, E., & Tarjana, S. S. (2019). Pragmatic Forces in The Speech Acts of EFL Speakers At Kampung Inggris, Indonesia.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10(1), 38-60.
- Song, B. M. (1999). A Study of Rhetorical Analysis in Biblical Interpretation: Test Case Text: 1 Cor 8:1-13. *Theology and Philosophy*, 1, 1-26.
- Zängle, M. (2014). Trends in Papal communication: a content analysis of Encyclicals, from Leo XIII to Pope Francis. *Historical Social Research*, 39(4), 329-364.

3. Others

- Bartík, A. (2018). *The Power of Religious Language: Pope Francis and His Public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glo-American University.
- Dicastery for Laity, Family and Life (2024. 5. 20.). Towards WYD Seoul 2027: With Christus vivit, to "learn from one another". Retrieved 2026. 1. 7., from www.laityfamilylife.va
-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6). Proclaim. Retrieved 2026. 1. 7., from www.vatican.va
- Liturgy Office (n. d.). Understanding Church Documents. Retrieved 2025. 12. 1., from www.liturgyoffice.org.uk.
- Okoro, U. (2023). A Corpus-Bas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Rhetoric of Part Three in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In A. Esimaje, F. E. B. Idahosa, S. Guobadia, & B. van Rooy (Eds.), *Christianity and Society: Essays in Honour of Archbishop Margaret Benson Idahosa* @ 80 (pp. 109-125). Galda Verlag.